

## 2021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종합심사평

다수의 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차별화된 현지 진출 전략과 플랫폼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본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국내의 만화시장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성공 기대요인을 도출하지 못한 채 플랫폼 구축만을 밀어붙이려는 점이 우려됩니다.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콘텐츠 수급 계획, 해외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현지화 전략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평가위원들의 합의로 최대 선정 과제 수의 1.5배수의 기획안을 서류평가 통과시키기로 전원 동의하였습니다.